

삼례농협 수박 '첫 출하'

롯데마트·전국농협 하나로유통과 온라인 등서 판매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은 30일 수박공선회(회장 박병구)와 함께 삼례읍 농협산지유송센터에서 삼례 수박 첫 출하식을 가졌다. (권영기 기자 10면)

이날 출하식에는 강신학 조합장을 비롯해 박성일 안주근수, 이창환 전북농협 부본부장, 이정근 삼례읍장, 삼례농협 임직원, 박병구 수박 공선회장과 공선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삼례농협 수박공선회는 32농가로 구성돼 있으며 450동(36ha) 규모의 비닐 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생산된 수박은 엄격한 공통신별을 통해 롯데마트, 전국농협하나로유통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당도 선별을 통해 12브릭스(Brix)의 수박을 출하해 당도와 식감이 우수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강신학 조합장은 "삼례 블랙유니 수

박은 농가는 생산에만 집중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농협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유통에 집중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례농협은 수박공선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인증,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교육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문현우 경영지원팀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정착 공로 인정

바이오진흥원 문현우 경영지원팀장, 고용노동부 장관 포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문현우 경영지원팀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의 확산 유도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발굴해 해마다 선정한다. 올해 기념행사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한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문현우 경영지원팀장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제도정비·시행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문현우 팀장은 "남녀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가족친화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해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제7대 기술자문위원 위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진환)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7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전국 대상 공개모집 방식으로 각 전문분야별 후보자를 모집했으며,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자격이 충분한 다수의 후보자가 지원하여 총 50명의 자문위원을 최종 위촉했다.

위촉된 '제7대 기술자문위원'은 토목·건축·도시계획·조경·전기·정보통신·디자인 총 12개 전문분야로 대학교수,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문가 장비활용기술 멘토링'

전북도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 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함께하는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뚝딱365'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총5회에 걸쳐 전문가 장비활용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가 장비활용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은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장비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시연하며, 1:1방식으로 장비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이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장비는 3D스캐너, 3D프린터, 3D프린터 분말소재 3D프린터, 3D프린터 장비로 구성된다.

3D스캐너는 비접촉식 측정기로 고성능 스캐닝 기술을 가지고 있어 빠른 속도와 높은 해상도, 정확도로 스캐닝한다. 복합재 3D프린터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복합소재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다른 프린터로 출력할 수 없었던 소재를 출력할 수 있다.

분말소재 3D프린트의 경우 출력물을 풀컬러와 기하학적 곡선 등 복잡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후처리장비는 여러 방식으로 출력된 3D프린팅 부품을 사출성형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표면과 동일하게 가공해주는 장비다.

6월 프로그램은 6월 28일, 29일에 진행되며, 화차당 2일씩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메이커스페이스 '뚝딱365' 홈페이지(www.maker365.kr) 또는 신청문의(063-219-3597)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MZ세대가 만들고, 전하는 새만금 이야기

2022 새만금탐험대 본격 활동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의 정책 알리미로 선발된 '새만금탐험대'가 지난 2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28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관광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한 현장감 넘치는 콘텐츠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새만금탐험대는 새만금의 위상과 비전을 설명하고, 지난 3월 새단장한 새만금 투자진 시판에서 미래 명품도시로 개발 중



새만금개발청의 정책 알리미로 선발된 '새만금탐험대'가 지난 2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인 새만금을 체험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 한상환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개발 중인 새만금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 의해 어떻게 조명될지 기대된다"라며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알리는 탐험대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중기 기술보호, 맞춤형 지원

전북중기청, 선도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보안의식 부족, 보안 관리 및 활동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기술자료 유출·탈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최근 비대면 업무 확산으로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모형을 따라 각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에 선정되면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해 기술보호 정책, 관리적 보호, 물

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사고/재해 관리 등을 기준으로 기술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기업은 현장컨설팅, 법무지원, 기술인적 정책보완, 교육지원 등의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기술보호 수준이 양호 이상인 기업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지킴이서비스 등의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우수(75점 이상)인 기업은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2년간 기술보호 수준 유

지·향상을 위한 후속지원, 기술개발 지원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우선 올해에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30개사를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 오는 2027년까지 3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별 기술보호 수준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기술보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6월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이메일(1p300@win-win.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유폴리 홈페이지(https://www.ultra.gov.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보호 전담지원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전화(☎ 02-368-8917, 8922, 8418)로 문의도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6월 중기 체감경기 '부정적'

경기전망지수 86.1p로 전월보다 1.5p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6월 중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6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6.1로 전월 대비 1.5p 하락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5월(87.6)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결과로 전년동월 대비로는 5.6p 상승해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6월 경기전망은 87.1로 전월 대비 1.7p(전년동월 대비 0.9p) 상승, 비제조업은 85.5로 전월 대비 1.4p 하락(전년동월 대비 8.0p) 상승했다. 건설업(82.2)은 전월 대비 1.2p, 서비스업(86.2)은 전월 대비 1.5p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기타기계및장비'(85.1→89.9), '화학물질및화학제품'(82.9→85.7)을 중심으로 7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목재및나무제품'(91.0→80.7), '금속가공제품'(91.7→81.9) 등 15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3.4→82.2)이 소폭 하락했고, 서비스업(87.7→86.2)에서는 '교육서비스업'(89.2→78.8),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89.2→91.7)을 중심으로 4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100.9→82.4),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83.4→78.9) 6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특히, 원자재가 격 상승 및 5월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목재및나무제품'(10.3p ↓),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8.5p ↓)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항목별로는 자금사정 전망(81.7→82.5)을 제외한 내수판매(87.6→86.9), 수출(89.4→87.1), 영업이익(82.4→81.2) 전망과 역계열 추세인 고용(93.3→93.6) 전망은 전월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6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경기전망,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전망은 물론 역계열인 실비·재고·고용전망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모든 항목에서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은 내수부진(54.0%) 비중이 가장 높고, 원자재 가격상승(51.7%), 인건비 상승(43.4%), 업체간 과당경쟁(39.4%)이 뒤를 이었다.

또한 '내수부진'(57.6→54.0), '인건비 상승'(45.2→43.4), '판매대금 회수 지연'(19.7→18.9) 응답 비중은 전월에 비해 하락한 반면, '환율불안정'(12.2→15.7), '업체간 과당경쟁'(38.8→39.4) 응답 비중은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

4월 중소기업 평균기동률은 72.5%로, 전월 대비 0.1%p 상승, 전년동월 대비 1.4%p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0.3%p 상승한 68.7%, 중기업은 전월 대비 0.2%p 하락한 76.1%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 대비 0.4%p 하락한 75.7%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LX, 드론·UAM 올림피아드 공모전

홈페이지 통해 참가신청서 온라인 제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주)파라항공이 주관하는 '드론·UAM 올림피아드 공모전'은 국내 드론 산업과 미래항공교통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기체 창작·비티포트·공간정보·드론교통관리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LX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 부문은 드론을 활용한 3D모델링 성과물의 UAM 활용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전국 대학(원)생으로 개인 혹은 5인 이내 공동 응모도 가능하다. 공간정보·기체 창작·드론교통관리

신협, 올 상반기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022년 상반기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60개 신협에서 약 60명이다.

모집 방법은 신협중앙회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신협(조합)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홍보를 대행하고, 최종 합격자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모집 신청서에서 결정한다. 모집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각 조합에서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무 경험과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u.innuit.com'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21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모집 신청서 최종 면접 절차를 거쳐 6월 27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